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주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 전북, 제3 금융중심지 도약 전환점 맞다

# KB금융에 이어 신한금융도 '전북행'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혁신도시에 사무소 개설  
도, 자산운용·농생명  
기후에너지 금융 맡아  
금융 삼각축 구상 추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부안군민과 함께

14개 시·군 방문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부안군을 찾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운데)가 군청 대강당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관련기사 3면)

대한민국 민간 금융의 양대 축인 KB 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잇따라 전북혁신도시에 금융 거점을 조성한다. 이번 결정은 전북이 '자산운용 중심 제3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자 국가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지난달 28일 증권·자산운용·손해보험 등 핵심 계열사를 한데 모은 'KB금융타운'을 전북혁신도시에 조성한다고 밝혔다. KB증권과 KB자산운용 사무소가 들어오고, SI 기반 비대면 전문 상담조직인 '스타링크'도 입점한다. KB손해보험 광역스마트센터도 구축되며, 기존 임직원 150여명에 100여명이 추가돼 총 250여명이 상주하게 된다.

다음날인 29일에는 신한금융그룹도 전북을 '자산운용·자본시장 핵심 허브'로 선언했다.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전주사무소를 개설하고 고객상담센터도 신설한다. 운용부터 수탁, 리스크 관리까지 자본시장 밸류체인 전체를 구축해 현재 130여명인 전문 인력을 3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로써 전북혁신도시에 정부 소속 기관 8곳, 준정부 및 기타 공공기관 5곳, 금융기관 18곳 등 총 31개 기관이

자리 잡는다. 도는 서울이 종합금융을, 부산이 해양·파생금융을 담당하는 국가 금융 구도에서 전북이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금융을 맡아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삼각축을 완성한다는 구상을 추진해 왔다.

이번 양대 금융그룹의 결정은 그 청사진이 현실화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특히 정부의 '극 3북' 지역균형발전 전략에서 금융특화지역으로 선도하는 전북이 민간 대형 금융그룹까지 유치하면서 명실상부한 금융 거점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

민간 대형 금융그룹의 연쇄적 이전은 도민 생활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적으로는 550여 명의 금융 전문 인력 유입으로 주거·교통·식음료·생활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지역 내 소비가 증가한다.

복수의 금융 계열사가 동시에 집적

돼 단일 기관 이전보다 경제적 승수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공간 조성 및 시설 운영에 따른 직접 고용은 물론, 보안·전산·총무·환경 등 용역·관리 분야의 간접 일자리도 함께 창출돼 지역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민간 금융그룹이 연계해 '현기금-금융사전문서비스'로 이어지는 실질적 밸류체인이 형성된다. 이를 통해 전북은 단순 지원 기능을 넘어 고부가가치 자산운용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금융 실무 기능이 정착되면 법무·회계·세무·IT·리스크 관리 등 연관 전문서비스업도 동반 성장하고, 전문 인력 유입과 관련 기업 지사 설립이 촉진된다. 또한 지역 대학과 연계한 금융공학·데이터 분석 등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청년층

## 파크골프, 新 관광·복지 동력

민주 이원택 의원, 180홀 파크골프장 조성 공약 발표

"단순 운동시설 아닌 복합 레저·관광 공간으로 발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이 도내 아동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180홀 파크골프장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광활하고 에너지와 활력이 넘치는 새만금과 도내 14개 시군 전체 지역을 활용한 대규모 파크골프장을 건설하면 대전과 광주,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이를 사용하려는 애호가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광전북을 넘어 체육인프라 구축 및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돼 도량치고 가재잡고 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 밝힌다.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따르면 "파크골프는 고령층 중심의 스포츠를 넘어, 최근에는 아이·부모·조부모가 함께 즐기는 전 세대 국민스포츠로 진화하고 있다"며 "전북의 넓은 공간과 자연 경관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파크골프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압도적 규모의 180홀 파크골프 복합 단지를 조성해 스포츠와 복지, 관광이 결합된 생활인구 유입형 산업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북의 파크골프 환경은 빠른 대중화 속도에 비해 △가족 친화형

복합시설 부족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인프라 미비 △확장 가능한 거점 공간 부재 등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사단법인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국 파크골프장은 총 424개에 달하지만 전북은 22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이중 정규회원 36홀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중·소규모 구장이 전체의 91%(207개)를 차지하고 하면서 전북 파크골프의 경쟁력 강화에 제약이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이 의원은 파크골프를 단순한 운동시설이 아닌 복합 레저·문화·관광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을 제시해 도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급성장하고 있는 파크골프를 전북의 새로운 관광·복지·지역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구체적으로는 보면 △간이 이용이 가능한 파크골프 코스 △가족 단위 체험형 테마 공간 △휴식·문화·관광이 결합된 체류형 콘텐츠를 도입해 파크골프를 전북의 대표 생활체육 산업 모델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파크골프장은 세대 간 벽을 허무는 생활체육 복지이자 지역 상권을 살리는 강력한 관광 상품이다"며 "국내 최대 규모라는 상징성을 바탕으로 전국 대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연간 수만 명의 외지 방문객을 전북으로 끌어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전북을 스포츠와 관광,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생활체육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성 기자

## 부안군, 지방정부 최초 ESG 경영인증시스템 획득

부안군은 지난달 30일 지방정부 최초로 ESG 경영인증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 이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행정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한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전국 지방정부 중 최초로 ESG 경영 인증 획득으로 국제표준 인증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부패방지(37001)에 이어 지난해 11월 환경(14001), 안전보건(45001) 경영시스템까지 인증을 취득

해 ISO 3관영(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부안군은 행정 시스템 전반에 걸쳐 글로벌 수준의 ESG 관리 체계를 완성한 최초의 지방정부라는 목표적인 타이틀을 거머쥐게 됐다.

이번에 취득한 ESG 경영인증시스템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ESG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

군은 이번 인증을 계기로 ESG 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청정 전북바다 지킨다... 어장정화선 '전북901호' 첫 출항

11월까지 96일 운항... 군산 등 총 1161ha 공유수면 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활동 기반 조성을 위해 어장정화선 '전북901호'를 투입해 본격적인 해양 정화 활동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전북901호는 2월부터 11월까지 총

96일간 운항하며 군산·고창·부안 해역 공유수면을 중심으로 해양폐기물 수거와 어장 환경 개선 작업을 수행한다.

전북901호는 2023년 건조된 171톤급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선수와 선



미에 정화 장비를 갖춰 해양폐기물 수거와 처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는 전문 어장정화선이다. 올해 정화 작업은 군산 651ha, 고창 150ha, 부안 360ha 등 총 1,161ha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연안 해역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화 활동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폐어망과 닻 등 침적 폐양식기 제거 수거, 불가사리·해파리와 같은 유해생물 제거 및 선상잡하장 해양폐기물 처리를 주요 작업으로 수행한다. /이만호 기자

#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읍시의회  
www.jcc.or.kr